

# ‘멋진 남자’ 현빈의 ‘어메이징’한 임대

‘사회지도층’ 현빈의 해병대 입대에 ‘현빈 애이’가 전국을 훔쳤었다. 인기 배우 현빈(본명 김태평·29)이 7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했다.

현빈은 이날 오전 11시께 교육훈련단에 도착해 군과 소속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뒤 오후 1시35분께 취재진과 팬 등 2000여명이 몰린 교육훈련단내 김성은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 2000명 환송…TV 생중계

현빈은 이 자리에서 눈시울을 뚫으며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2년 뒤 당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히고 팬들 앞에 큰절을 한 뒤 입소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흥행 이후 2개월여 동안 40억

원을 벌어들인 현빈이 월급 7만8300원의 김태평 훈련병으로 옷을 바꿔입는 순간이었다.

이날 부대가 있는 오천읍을 비롯한 포항시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일본과 홍콩, 중국 등에서 온 500여명의 팬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교육훈련단 정문 앞에서 현빈의 대형사진과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는가 하면 일본 NHK 등 국내외 취재진 200여명도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

포항시는 해병대의 협조를 얻어 부대 앞 5곳에 홍보부스를 설치했고, 훈련소 내에 200인치 LED 전광판 3대를 설치해 시정홍보물을 상영했다. 도심 곳곳에는 현빈의 임대를 알리는 각종 플래카드가 내걸리며 현빈의 응기에 박수를 보냈다.

중계차도 동원됐다. YTN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파견된 중계차를 통해 현빈을 배웅하기 위해 몰린 팬들의 모습부터 기자회견장의 상세한 내용까지 생중계

했다. 연예인의 군입대가 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것은 사상초유의 현상이었다. 이날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 ‘오빠 입대 알아서 잘해 난 현빈보러갈까’, ‘어떻게 2년을 기다려’, ‘현빈 오빠 잘 다녀와’ 등의 글을 남기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현빈의 입대에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데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성공과 수많은 CF, 배틀린 영화제에 초청된 영화 ‘만주’, 임수정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개봉 등 현빈 데뷔 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입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 “당당하게 돌아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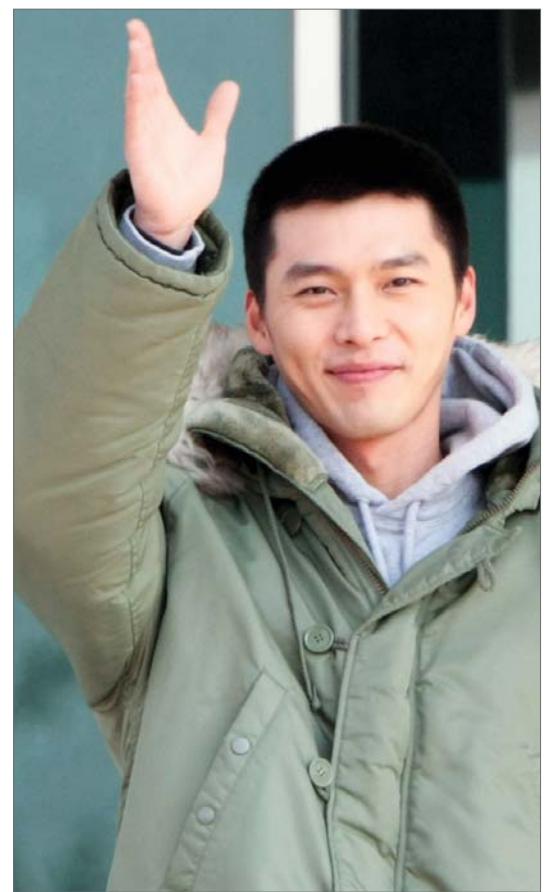
특히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군입대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방위산업체나 공익근무, 연예 사방 등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연예인들과 달리 가장 힘들다는 ‘해

병대’에 자원입대한 것이, 공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연평도 피폭 소식과 함께 현빈의 해병대 자원입대 뉴스가 전해지자, 팬들은 그가 출연한 시크릿 가든의 대사를 파리디해 “사회지도층”다운 ‘어메이징’한 결정”이라며 아쉬움 속에서도 박수갈채를 보냈다. 한편 해병대 병 1137기로 입소한 현빈은 앞으로 7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21개월간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다. 제대는 2012년 12월 6일 오전 8시다.

/포항 매일신문 장성혁기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고은 시인 ‘아메리카 어워드’ 선정



고은 시인(78)이 미국 ‘콘텐츠포러 아츠 에듀케이션 프로젝트(Contemporary Arts Educational Project)’가 주관하는 ‘아메리카 어워드(America Award)’ 2011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1994년 제정된 이 상은 평생 세계문학에 기여한 문인에게 주어지는 공로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영국 극작가 해럴드 펀터와 포르투갈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작가 페터 한드 케, 시리아 시인 아도니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이 수상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은 시인이 첫 수상이다. 고은 시인은 7일 “보름 전 을해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만인보” 완간을 비롯해 그동안의 문학적 성과에 대해 인정해 준 것으로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지금까지 ‘내일의 노래’, ‘만인보’ 등 고은 시인의 시집 약 10권이 소개됐으며, ‘히말라야 시편’이 상반기 내 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일우·김소은 전주국제영화제 홍보대사



배우 정일우  
와 김소은이  
제12회 전주국  
제영화제의 홍  
보대사로 선정  
됐다고 영화제  
사무국이 7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열릴 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촉장을 받고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한다.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열린다.

## 인사

◆중소기업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일  
반직고위공무원 양봉환

## 말못하던 파키스탄 7세 소녀

### 한국서 수술 받고 “엄마아빠”

“(딸이) ‘엄마 아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 엘 리얼리 해피(I am really happy). 한국에 감사합니다.”

2007년 한국으로 유학 온 파키스탄인 마시 바시르(38)씨는 막내딸 한나(7)가 최근 “아빠”라는 한국말을 입밖으로 뱉어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한나는 고국에 있던 2살 때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청력을 잃었고 그동안 말을 하지도 듣지도 못했다. 한나에게 뱉어낸 선물은 가족다운 건 다행 아닌 아버지의 ‘유학 기회’였다.

2009년 3월 한국에 와 있던 바시

르씨를 만나려고 아내가 딸 니아(당시 9세), 한나(당시 5세)를 데리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했다.

두 아이는 이모가 머물던 경기도 안산의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에 놀러 갔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사 김영미(여·46)씨를 만났다.

김씨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다 한

나가 청력을 잃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고, 국내에 머무는 3개월간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부모에게 권유했다.

여기저기 수술문한당 김씨는 센터와 결연한 청담동의 한 이비인후과에 한나를 데려갔다가 우연히 옆자

리의 환자 어머니에게서 KT 농아 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한나(오른쪽)

원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다.

한나는 KT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도움으로 마침내 지난해 12월 왼쪽 귀에 인공외우를 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미쳤다. 이번 달에는 오른쪽 귀 수술을 받는다.

수술을 진행한 세브란스병원 최재영 부교수는 “선천적으로 귀가 약한

데 두 살 때 고열을 앓고 치료를 받지 못해 청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그대로 놔뒀다면 아예 못 듣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어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한나는, 지난 1월 난생 처음 한국어로 “엄마, 아빠”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재원 전역…7년만에 모인 ‘H.O.T’



2001년 해체된 5인조 그룹 H.O.T가 7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제28사단 앞에서 멤버 이재원의 군(軍) 전역식에 다시 모였다.

H.O.T 5명이 뭉친 것은 2004년 SBS ‘스타 명예의 전당’ 핸드 프린팅 행사 이후 7년 만이며, 멤버 중 이재원이 가장 마지막으로 군 복무를 미뤘다.

멤버 장우혁은 “재원이가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활동 많이 할 테니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며 “재원이가 제일 생각난다는 자장면을 함께 먹려 갈 것”이라고 했다.

또 토니 안은 “재원이가 올해 열심히 준비해 준말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전역식이 열린 부대 앞은 이재원을 비롯한 나머지 멤버를 보기 위해 1시간 전부터 몰린 팬 500여명으로 빨디길 틈이 없었다.

이재원은 “반겨준 팬들에게 정말 감사한다”며 “올해 같은 무대에 설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북구 그린 마을 종합평가 ‘우수’

### 공공·민간부문 올 8번째…시상금 2억여원 달해

‘함께해요,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표방한 광주시 북구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잇따라 큰 상을 받았다. 올 들어서만 여덟 번째다.

7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한 “2010 그린 마을 종합평가”에서 우수마을(신안동 모아아파트)로 선정됐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한국도서관공동체”가 주관한 “한국도서관공동체”가 주관한 “한국도서관공동체”

(일국도서관)으로 선정돼 협회장 표

창장을 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

관으로 열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에서 주관한 기초질서 지키기 종합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관)·공공기관 단소매출권 거래 시범사업 평가기관(광주시 주관)·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성과분석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등 공공·민간부문에서 각종 상을 획득했다. 상 사업비와 보조금만 2억 2600만원이다. /이종행기자 golee@

## 광주총장로타리클럽 장학금 3759만원



광주총장로타리클럽(회장 신복수)은 최근 방글라데시 유학생 콘두 소미투루(전남 대회학과 박사 과정)씨 등 국·내외 대학생 18명에게 장학금 3759만원을 전달했다.

〈광주 총장로타리 클럽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이상열·박효숙씨 장남 병률군 이한성(송원고 교사)·최수복씨 장녀 슬기양=12일(토) 오전 11시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현성권(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무국장)·정해자씨 치남 대용(전남대 병원의사)군 정해석(KT 상무지점 팀장)·김정자씨 장녀 수영(광주 삼육중학교)씨=양=13일(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 및 교양강좌=9일(수) 오후 6시 30분 회랑궁회관, 062-224-1800.

▲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 모집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종 암초등학교 애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건강한 생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2591-5728.

### 임대

▲GS 피부미용, 네일아트 학원 교육생=피부 국가자격증반, 네일 예술, 메이크업, 스파일리스트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쌍촌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김 암식장·김 공장·선원 일하 실 분=초보자·경험자 우대, 7명 급 구함, 숙식제공, 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백운파출소 부근. 010-8072-2589

### 임대

▲광주FC 축구회원=자영업, 직장인 20~50대 참여 환영, 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동 인조잔디장. 010-6495-5728.

### 임대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학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학창단 모집. 062-675-5955.

▲전남당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당지 거주자이며서 조건 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동, 도자기, 집수리 등.

### 임대

▲광주시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학창단=불행한 가정의 통합과 소통, 격려를 위한 혼성 학창단 모집. 062-675-5955.